▣ 박근종 칼럼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대전환에 따른 경제 충격 현실화, 구조개혁 서둘러야

한국 경제가 연 2.0%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2034년까지 추가로 122만 2,000명의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은 사실상 '0%'에 머물고, 2030년부터는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동반 감소하는 '고용 정체에서 고용 축소'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크게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시장에서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못 찾는 '취업 빙하기(氷河期)의 역설'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전망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 12일 발표한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 인력 전망'을 근거로 추계한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이 본격화된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총량'의 문제다.

취업자는 2024~2029년 36만 7,000명 증가한 뒤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2029~2034년에는 30만 3,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4~2034년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6만 4,00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05%에 그친다.

취업자와 구직 중인 실업자를 합친 개념인 경제활동인구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9년 34만 6,000명 증가한 후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30~2034년에 21만 명이나 감소한다. 2024~2034년 경제활동인구 증가 규모는 13만 6,000명으로 직전 10년간의 256만 3,000명의 20분의 1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10년간 192만 7,000명이나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80만 명이나 증가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4년 전체의 31.7%까지 확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 시장이 고령층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된다는 의미이자 사실상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경고다.

산업별로는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영향 등으로 사회복지·보건업 분야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연관된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 취업자도 증가한다.

반면 소매업은 온라인·플랫폼화 확산 영향 등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도매업과 음식주점업, 제조업 등의 취업자도 감소한다. 고용정보원은 연평균 성장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선 노동 시장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122만 2,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필요 인력은 2024~2029년 연평균 5만 4,000명에서 2029~2034년 19만 1,000명으로 급증한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인력 수요가 가장 많다.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등 중·저숙련 직군에서도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감소 전환 시점이 '2030년'으로 지목된 점이 눈에 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반기(2024~2029년) 증가 후 후반기(2030~2034년) 감소로 돌아서고, 취업자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불과 4년 뒤인 2030년부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동시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줄어드는 고용 정체기(停滯期)가 곧 닥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15세 이상인 경제활동인구를 더 늘리지 못하면 2024~2034년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2.0%까지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여성·청년·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든 해외 인력을 받아들이든 122만 2,000명을 추가로 고용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이라는 질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를 포착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AI 등 기술 변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적시에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력수급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시장에 몰고 온 충격을 흡수하면서 효과적인 인력공급을 이뤄내야 하는 일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현안이다. 다가올 노동력 부족은 과거 출생률 저하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인구를 늘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인력이 모자라는 만큼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생산 물류 등의 자동화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진통이 있더라도 '휴머노이드(Humanoid ｜ 인간형)'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한다.

노동 인구가 부족한 마당에 휴머노이드 투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성장률 현상 유지조차 어렵기 마련이다. 세계 각국이 생산성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를 우리만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다.

필요한 산업 수요에 맞춰 어떤 형태로든 노동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유연성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긴요하다.

역설을 키우는 또 다른 축은 기술력의 변화다. AI 확산으로 산업·직무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저숙련·반복 업무는 축소되는 반면, AI·디지털, 보건·돌봄 등 고숙련·전문 인력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별로는 보건·AI 관련 분야는 늘고, 소매·건설 등 일부 업종은 줄어드는 식의 '일자리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못 구하고, 구직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가 심화할 우려도 크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 분야의 구조 개편도 서둘러야만 한다. 수술이 아프고 힘들다고 미루고 피하면 절대로 새살이 돋아날 수 없다. 경제 생산성을 높일 전문성을 갖춘 해외 인력 확충도 중요하다.

단순히 현장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과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고도화해야만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대전환에 따른 경제 충격은 이미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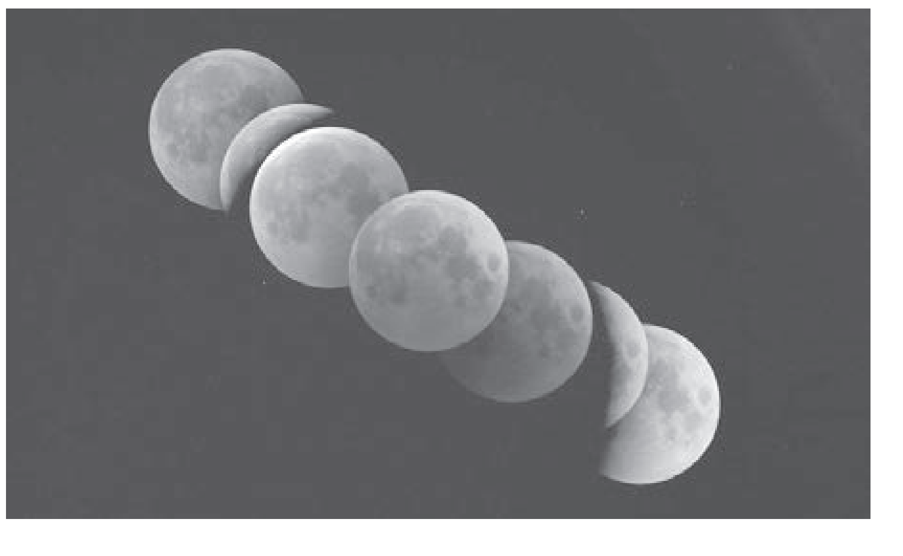
지금 당장 유연하고 선제적인 방안 강구는 물론 적극적·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각오로 구조개혁 결행으로 답하고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강화천문과학관, '블러드 문' 개기월식 특별 관측행사 운영

3월 3일 정월대보름 밤하늘 수놓을 예정

다음 개기월식은 2028년… 특별한 순간 함께하길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강화천문과학관에서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에 펼쳐지는 특별한 천문현상인 개기월식을 맞아 관측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며 붉게 물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번 개기월식은 오후 6시 49분경 부분월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4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개기월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비교적 편안한 시간대에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다음 개기월식은 2028년 말로 예정돼 있어,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은 관측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천문과학관은 개기월식 당일인 3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특별 관측행사를 진행하며, 월식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전문 해설을 곁들여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행사에서는 천체투영관 특별해설과 천체망원경을 통한 실시간 관측은 물론,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월식의 전 과정을 대형 화면으로 투사해 월식의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관람객들은 개인 스마트폰으로 망원경을 통해 개기월식의 순간을 촬영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에 앞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사전 프로그램으로 개기월식 특강 '월식 체험기 만들기'가 운영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월식이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체험형 활동을 통해 개기월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강화천문과학관 관계자는 "개기월식의 특별한 순간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정월대보름 밤, 가족과 함께 달을 바라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주서 마주한 조선시대 전통한옥…각국 대사들 "굉장하네요"

시도지사협의회 초청으로 경기전 방문…한옥·한복 등 체험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내 경기전을 찾은 26개국의 주한 외국공관장(대사)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조선 태조의 어진(御眞·초상화)을 모신 경기전 등 고풍스러운 한옥을 마주한 대사들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대사들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옥 담장과 대나무 숲, 어진을 모신 정전 등을 천천히 둘러봤다.

중간중간 감탄과 함께 엄지를 추켜세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이라이트는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함께 준비한 한복 체험.

관람 도중 대사들은 웃옷을 벗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전통 갓을 쓰는 등 오색빛깔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조선 시대 왕이 입었던 붉은 용포를 걸치거나 전통 부채로 한껏 멋을 낸 대사들도 있었다.

대사들은 한옥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경기전을 둘러본 대사들은 한옥마을에 있는 공예품전시관과 한지박물관에 들러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주한외교단(CDC)이 각국 주한 외국공관장을 초청해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K-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시 일원에서 한옥과 한복, 한지, 태권도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참석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라오스, 루마니아, 르완다, 멕시코, 몽골, 미얀마, 스위스, 스페인, 엘살바도르,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잠비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이다.

혼자라도 괜찮아, 나 홀로 떠나는 서울대공원 식물원 여행!

전시관 명칭 재정립 및 숫자형 동선 안내체계 도입 직관적 관람 편의 제공

QR 기반 자기주도형 관람 프로그램 '나혼자 식물원 투어!' 운영

서울대공원은 40년간 유지해오던 전시관 명칭과 기존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2026년 1월부터 전시관 명칭 재정립과 함께 숫자형 동선 안내체계를 도입하여 식물원 관람 편의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편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기존 식물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 기후대별로 불리던 전시관 명칭을 선인장관, 열대식물관, 난대식물관, 식충식물관 등 식물의 특성별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공간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숫자만 따라가면 선인장관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인 식충식물관까지 주요 전시공간을 빠짐없이 관람할 수 있는 숫자형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생생한 식물관람에 심도있는 정보를 더하기 위해 식물표본전시관까지 연계된 통합 관람 코스를 마련하였다. 식물표본전시관은 4가지 특화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식물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는 식물표본전시실, 식물과 생태계의 관계를 다루는 식물환경전시실, 풍부한 식물 정보를 제공하는 식물도서관, 식물 사진과 세밀화의 예술성을 감상하는 식물갤러리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기주도형 관람 프로그램 '나혼자 식물원 투어!'를 운영한다.

식물원 전시온실과 야외주제원의 각 테마 공간별 주요 수종 30종을 대상으로 QR 기반의 시청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이 식물의 특징과 생태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오는 3월부터는 '이달의 식물'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별·시기별로 식물원의 대표 식물을 선정하고 식물에 MBTI 개념을 접목한 '식물 MBTI'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객은 식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성격을 확인하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식물을 찾아보는 이색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그동안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식물원 관람 환경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단순 관람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는 심화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예약 500건 돌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시가 남산뷰 카페.한옥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예식장을 60여 곳으로 늘리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280쌍이 예식을 올렸고 올해는 506쌍(2월 기준)이 예식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예비부부가 더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한층 강화, 서울 시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예식 지원을 비롯해 촬영.연출.문화 확산을 포함하는 '2026 종합 결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의 대표 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지원하는 결혼식 사업으로 현재 남산 한남웨딩가든 등 예식 장소 총 61개소를 운영 중이다.

시는 스몰웨딩, 전통 혼례 등 '테마웨딩'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색다른 웨딩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촬영지도 제공한다.

실속 있는 결혼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서울식물원 잔디마당(강서구 마곡동)에서 '서울 결혼 페스타'를 개최한다. 예식상담, 결혼.출산 생애주기별 정책 안내, 전문가 초청 강연, '더 아름다운 결혼식' 시연 등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예식 장소 확대 및 특색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예식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 실제 이용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발굴도 지속해 나간다.

세계타임즈
www.thesegye.com
기자제보 : news@theseg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편집국장 이장성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